

광주 대형건물 주차장 손 놓은 '안전불감증'

종합병원·빌딩 등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안해

감독기관 인력 부족 이유 사실상 단속 뒷집

광주지역 종합병원이나 빌딩의 상당수 '건물식(2층 이상) 주차장'이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하지만, 이를 감독하는 행정기관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유료 주차장(6층 건물용 5·6층 주차장)의

경우 20~50cm 간격으로 주차된 차량들 대부분이 두께 10cm에 불과한 외벽에 거의 맞닿을 듯 주차돼 있었다. 추락 방지턱도 없었다.

주차장 벽이나 난간이 상당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는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자칫 운전 미숙으로 외벽을 들이받을 경우, 바로 외벽을 뚫

고 7m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외벽을 두껍게 보이게 하려는 듯, 외벽엔 실리콘으로 연결한 속 빈 스테인레스 구조물이 덧대어져 있었다.

주차장 외벽에는 '추락·접촉·도난 사고시 당사자가 이유없이 책임을 진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추락방지시설이 부실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운전자 김모(여·35)씨는 "잘못하면 외벽에 부딪힐 뻔 했다"며 "안전 펜스가 부실해 자칫 실수하면 추락할 수도 있겠다"고 불안해 했다.

현행 주차장법 등에 따르면 '건축물식 주차장 외벽 및 추락방지 안전 기준'에는 높이 60cm 이상, 너비 160

cm 이상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2t 무게의 차량이 시속 20km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 충격은 50kn(킬로뉴턴·무게 5t)으로 5t 화물차 한 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설을 갖춘 주차장은 찾기가 쉽지 않다.

이날 현재 각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주차장은 모두 52곳. 이중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34곳이다. 구별로는 동구 6곳(미설치 6곳) ▲서구 16곳(/ 11곳) ▲남구 6곳(/ 6곳) ▲북구 7곳(/ 4곳) ▲광산구 17곳(/ 13곳) 등이다.

그러나 관리·감독할 각 구청은 '번

산'만 바라보고 있다.

시는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통보를 받은 이후 최근까지 여섯 차례 걸쳐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차장 업주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구청은 업주에게 300만원 이상의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그동안 시에서 보내온 공문대로 계도 위주의 관리·감독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5분 / 해질 18시 45분 / 달돋이 12시 53분 / 달질 02시 21분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2/10℃
목포	맑음	-3/7℃
여수	맑음	-1/8℃
나주	맑음	-4/10℃
완도	맑음	-2/9℃
구례	맑음	-4/11℃
강진	맑음	-4/9℃
해남	맑음	-4/9℃
장흥	맑음	-4/10℃
순천	맑음	-4/10℃
영광	맑음	-4/7℃
진도	맑음	-2/8℃
전주	맑음	-4/9℃
군산	맑음	-4/7℃
남원	맑음	-6/10℃
옥산도	맑음	1/6℃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3.0m	관심	매우높음	높음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목포 08:37	00:58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여수 04:12	11:0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10	3/15	4/14	2/10	1/13	2/15

건설업자 '고위층 성접대' 경찰, 동영상 확보에 주력

경찰, 관련자 3명 조사...지도층 인사 누굴까 주목

사회 지도층 인사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이 3명의 참고인을 조사해 성 접대 동영상에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설업자 윤모(51)씨를 지난해 11월에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50대 여성 사업가 A씨 등 3명을 19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해 윤씨가 성 접대를 하고 그린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가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전 현직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실체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윤씨 측이 갖고 있다는 동영상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내사에 들어가면서 윤씨의 공사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성 접대 유무 및 동영상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경찰이 소환 조사한 참고인들은 A씨 등 여성 2명과 남성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참고인이 피해자에 가까운 만큼 신변보호를 위해 제3의 장소에서 밤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와 지인 2~3명, 고소인인 A씨 측 2~3명, 성 접대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 5~6명, 성 접대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10여명 등 모두 3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남구 건강타운서 '전국노래자랑' KBS1의 '전국노래자랑' 녹화가 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광장에서 송해씨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결핵환자 진료비 전액 국비 지원

질병본부, 입법화 추진

결핵 환자의 건강보험 외래·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되 환자가 치료받아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질병관리본부장은 20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핵 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본부장은 "실질적인 본인 부담이 5%인 결핵 진료비를 국비로 지원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현행 결핵 진료비는 산정 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10%이고 이 중 절반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결핵 환자는 약 6만~7만명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2011년 새로 결핵에 걸린 환자 수(발생률)는 100명이며 광주는 86명, 전남은 63.9명이다. 광주·전남의 2011년 한해 동안 새로 결핵에 걸린 환자의 총수는 2463명이었다.

전국적으로 결핵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10만명당 4.9명이며 광주·전남은 한명도 없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담양 친환경쌀 인증 과정 위반사항 적발

전남대 인증센터 이례적 업무정지 처분

부실하게 친환경 관련 인증을 했던 대학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관인 전남대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행정처분으로 전남대 인증센터는 오는 8월 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의 접수·심사·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

품관원 본원과 전남지원은 지난달 전남대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여 담양군 친환경쌀 인증 과정에서 심사 절차와 방법 등에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대학 등 공공기관의 친환경 인증기관이 업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 기관이 인증 심사와 관련해 시료채취 부적정 등 심사 절차와 방법에 위반 사항이 발견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는 지난 1월 담양군 내 친환경쌀 인증면적의 42.1%에 달하는 696.3ha(유기농 105.6ha, 무농약 590.7ha)에 대해 부실한 영농 관련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인증을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센터 측이 영농일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품관원에 서 지난달 센터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실하게 진행된 인증 업무를 덮기 위해 무더기 취소로 강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檢, 합성득 고려대 교수

알선수재혐의 영장 청구

대통령학의 국내 권위자인 합성득(50) 고려대 교수가 정부 고위 관리와의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인터넷 쇼핑플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합 교수와 모 방송사의 계열사 이사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ELYSIA
엘리시아

www.elysia.co.kr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축복 받은 집"

씨푸드 뷔페 — 엘리시아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런치	디너	런치	디너
성인	23,000	27,000	30,000	33,000
초등학생	12,000	14,000	15,000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9,000	10,000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 (나주점)
☎ 061-332-1111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엘리시아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빔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에경사회화 / 축화화본 / 꽃바구니 / 꽃다발
인터넷주문,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 062)513-4000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에경사회화 / 축화화본 / 꽃바구니 / 꽃다발
인터넷주문,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 062)513-4000

엘리시아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